

살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겨울 동안에는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꽃샘바람이 세계 불어 오히려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 지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을 떠나 네팔에 온 지도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주시고 네팔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네팔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월 5일 네팔 총선이 진행되었는데, 선거 전부터 관공서와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거주하더라도 고향이 시골인 경우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선거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생필품을 준비해 두라는 안내가 대사관에서도 전달되었습니다. 네팔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가페 공동체 소식

아가페 가족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선교사는 카트만두 한글학교 교장으로 섬기며 네팔에서 자라난 한국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교사들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어느덧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는 한동대학교 생명과학과 2학년이 되어 전공 공부를 시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9월 한국 대학 수시 지원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탁구장에서는 어린 초보 선수들을 도우며 섬기고 있습니다.

영이는 여전히 탁구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는 탁구장이 한곳뿐인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곳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습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저희 탁구장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

하기도 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수지와 진이는 10학년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은혜는 요즘 집에서 가사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홉스 탁구교실 소식

홉스 탁구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순위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2월 순위 경기에서는

1등 비살

2등 아모스

3등 비부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도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수들도 있어 감사했습니다. 매달 순위 경기가 있는 날에는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탁구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선수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해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들의 기쁜 모습을 보며 더 많이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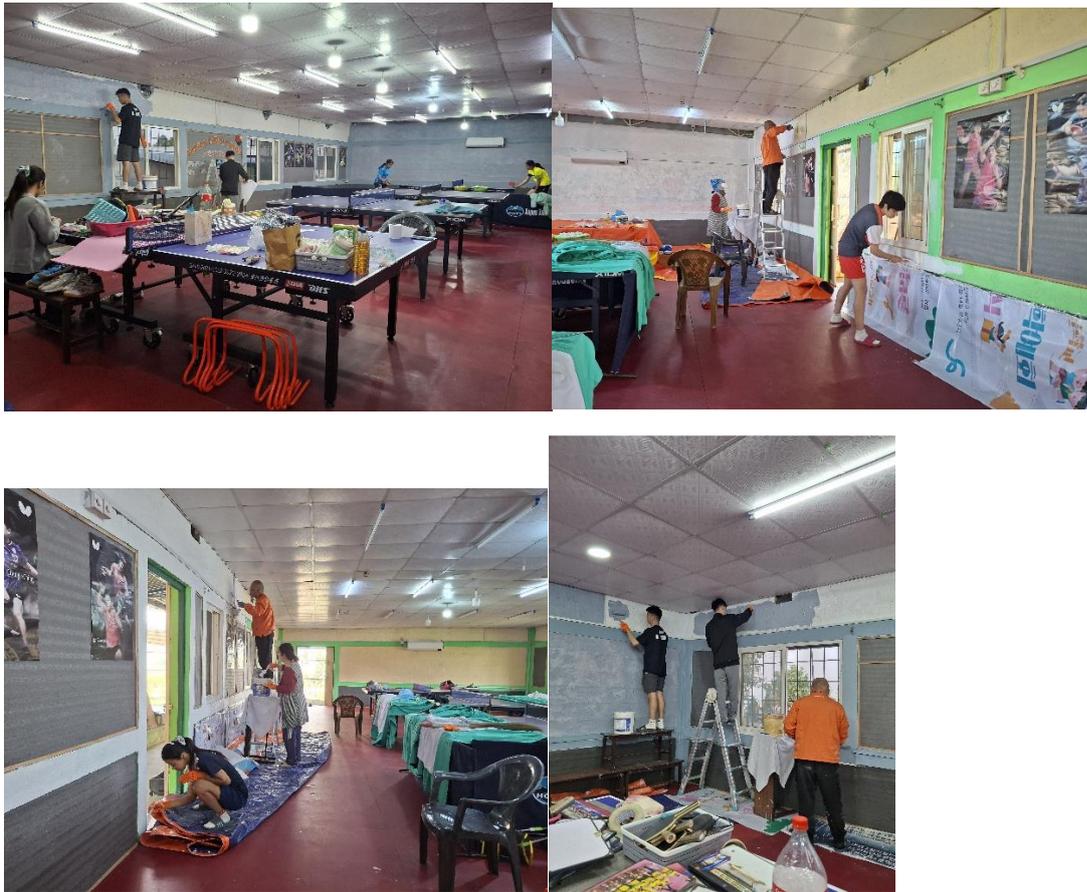


영이와 히말 국가대표 선수는 5월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대회가 많지 않아 체력훈련도 함께 하고 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꿈나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탁구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찾아와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비록 직접적인 전도는 어렵지만 언젠가 이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리라 믿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흡스 탁구장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새롭게 공사했고, 교회이면서 탁구장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탁구 가족들과 함께 페인트칠을 하여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훨씬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간을 조금씩 증축하여 많은 네팔 탁구선수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운동하고 대회도 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팔에서 더 많은 탁구 선수들이 배출되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가페 교회 소식

네팔에서는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와 협력하고 계시는 현지 목사님의 교회가 월세로 작은 공간을 얻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현재 아가페 교회에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저희를 방문하셨던 권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네팔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지 교회를 위해 성전을 건축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네팔 땅에 성전을 세울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네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2. 네팔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도록
3. 아가페 사역(호스텔, 탁구교실, 교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 되도록
4. 네팔 교회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5. 홉스 탁구교실이 증축되어 더 많은 꿈나무 선수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6. 한국과 네팔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7. 수지 진이가 10학년 마지막 시험 잘 보고 통과하여 College(고2학년)에 갈 수 있도록
8. 5월 16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탁구훈련과 크리스천 탁구대회에 네팔 주니어 선수 6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비자를 잘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9. 함께 동역해주시는 교회와 후원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6일

네팔에서

장언순 · 고연희 선교사 드림